

# “불교문화와 함께 하는 한해의 마무리”

## 부산불교연합회, 12월 9일 '2015 송구영신한마당'

동지는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지를 지내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동지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불교문화축제가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2월 22~31일 부산시민공원 내 겨울연못 일대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부산송구영신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연말마다 부산시민을 위한 송구영신 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가 열리는 부산시민공원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에도 하이리아 부대라고 불리며 미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1995년에 즈음하여 캠프 하이리아 이전 및 부지 반환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면서 2006년 부지를 폐쇄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넓은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행사 진행이 용이하며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다.

행사는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동지 팔죽 나누기를 시작으로 겨울연못 일대에서 12간지를 상징하는 대형등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등, 초롱등, 유등 전시가 진행된다. 아울러 12간지를 이용한 개인 소원지 불이기, 다양한 포토존, 마술, 노래, 다양한 레퍼토리를 이용한 공연도 진행된다.

### 부산시민공원서 22~31일 개최 전통등 전시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동지 문화 살리는 불교행사로”

특히 겨울연못에서는 연꽃등을 물위에 띄우고 연꽃발을 장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산의 도시브랜드 강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자비의 동전 모으기 행



송구영신 한마당에 설치 될 12간지등, 전통등 전시와 함께 다양한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사도 진행된다. 행사 중 모금된 성금은 사회나눔활동에 사용된다.

부산등축제조직위원회와 부산시설공단(이사장 박호국)은 12월 9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양 단체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함께 공유하고 상호협력한다.

부산등축제조직위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송구영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전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겨울연못에서는 연꽃등을 물위에 띄우고 연꽃발을 장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산의 도시브랜드 강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자비의 동전 모으기 행

한편, 이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부산등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 부산 구평사, 자비나눔 실천 릴레이 ‘눈길’

부산 구평사 나누우리 봉사단이 '자비나눔 실천도량 4080 복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자비나눔 실천도량 4080 복지 릴레이'는 마산 탐사 나누우리 봉사단이 주축으로 전국의 나누우리 봉사단이 함께 펼치고 있는 복지 사업이다. 나누우리는 대구 헤인정사, 전주 분원 실상사, 인천분원 월천사 등 총5회에 걸쳐 자비나눔실천 4080 릴레이 연탄 및 백미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구평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12월 9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독



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 4080장을 107가구에 전달하고 백미 2080kg를 208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 릴레이는 주식회사 북성산업개발의 박근태 회장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 부산 흥법사, 깐따모레 정기연주회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깐따모레 정기연주회가 12월 8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깐따모레는 흥법사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 계승 포교를 위해 2011년에 창단된 합창단으로 부부, 친구,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혼성 합창단이다.

정기연주회는 '좋은인연', '월월 날아오', '항해', '한계령' 등 귀에 익숙한 가곡과 찬불가 등 공연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조안나의 바이올린과 이하룡, 박린가의 플루트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합창을 통한



포교는 감동과 함께 많은 대중을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깐따모레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흥법사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하성미 기자

## “종교를 넘어 평화를 기원합니다”

공동선 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기도·음악회 개최



6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화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6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 평화와 종교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동선 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는 12월 7일 부산 이기대 성당에서 '제21회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21년 전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기도회 및 음악회'에는 정여, 윌강, 성담, 정오, 보혜 스님 등 스님들과 김계준, 김승주 신부 및 황성민 목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정여 스님의 인사말과 김승

주 신부의 환영사, 기도회가 이어졌다. 이어 2부 음악회에서는 이기대 성당의 오르간 독주로 시작해 두나미스 앙상블, 청공 중창단, 빨레나 앙상블 등의 무대가 펼쳐졌다. 회장 정여 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사랑과 자비의 이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종교간의 영적 교감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늘 기도회 및 음악회에서 함께한 인연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에 더욱 충실하고 이웃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종교인이 되자"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 “평생 웃는 모습 떠올리며 중생살림에 회향”

영천 은해사 12월 3일 동곡당 일타 스님 16주기 다례재 거행



일타 스님 다례재에는 은해사 조실 해인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2월 3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동곡당 일타 스님 16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타 스님 부도탑에서 반야심경 봉독, 조사전 참배 등이 진행됐으며 다례재에서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의 일타 스님 행장소개와 종사연방과 현대현화가 진행됐다.

추모다례재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조계종 아산장 동주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제주 선림사 진학 스님, 육천사 지성 스님과 은해사 조실 해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

여했다. 다례재에서는 은해사 조실 해인 스님이 "평생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신 일타 스님을 생각하며 포교와 중생살림에 수행을 회향하자"고 당부했다.

설정 스님도 "일타 스님은 겨울의 참실천이란 가르침을 주시고 상이 없는 모습으로 평생 사신 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타 스님은 1942년 통도사 고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조계종 전계 화상과 원로위원을 지내며 후학양성에 힘쓰다 지난 1999년 세수71세, 법랍58세로 열반에 들었다. 손운철 대구지사장

## 연화조계종 11월 21일 창중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영천 정암사(주지 혜법)는 11월 21일 창중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영천포교당 묘청 스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종정 보명 스님의 진산식과 총무원장 혜법 스님의 취임식 등이 진행됐다.

종정 보명 스님은 "늙음과 수명은 막을 수 없고 명예와 재물은 아침이슬 같으니, 부지런히 정진하여 부처되어 중생제도에 전념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혜법 스님은 "어두운데 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불법이란 남을 위해 설치하지 않으면 슬기있는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손운철 대구지사장

## 부산 강서 경찰서 경승실, 점안 법회

부산강서구불교연합회(회장 윤암)는 부산 강서 경찰서 경승실에 12월 7일 석가모니 부처님 복장 봉안과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강서구불교연합회회장 윤암 스님, 강서경찰서 경승실장 자인 스님, 박도영 강서경찰서장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암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셨다"며 "경찰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활동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도영 강서경찰서장도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어 뜻 깊다. 부처님의 가피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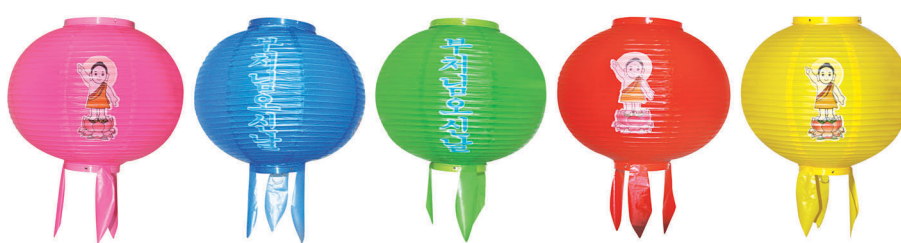
#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x308mm)  
29호 12절 13매 (257x263mm)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